

미국 기준금리 5연속 동결...신중 기조 유지

파월, 1~2월 물가 상승 의미 안뒤...2% 인플레이션 달성 의지 표출 일각선 '과잉긴축' 부작용 우려 분석도...6월 이전 금리인하 기대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작년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같은 4.6%로 예상하며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오후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5.50%로 5연속 동결하면서 연내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회로

유지한 것은 지난 1~2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고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까지 인내심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잉 긴축'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이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방침을 유지할지에 쏠려있었다.

올해 1월에 이어 2월 들어서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기록되면서 물가상승률

이 2%대 후반에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탓이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금리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온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 위원들이 연내 세 차례 인하 전망을 두 차례 인하로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3개월 만에 2.1%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다.

물가 전망은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의 경우 기존의 2.4% 전망을 유지했지만,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여정을 거치더라도 점진적으로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물가지표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꼬집어내지 않았다"면서도 "(일시적인) 요철인지 그 이상인지는 모르고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일각에선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하 시기를 놓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잉긴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 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었지만, 상황이 곧 바뀔 수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급격한 수

요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민자 유입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 공급 요인과 팬데믹 부양책 등 긍정적 수요 요인의 효과가 사라지면 긴축정책의 여파가 갑자기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는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로 마감하는 등 이날 연준 결정에 환호했다.

6월 이전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장 기대감이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증시 마감 후 6월 이전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7%로 반영했다. 이는 하루 전의 5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연합뉴스

'친환경 원료 사용' 제품 인기...광주신세계, 친환경 브랜드 적극 발굴

이슈·베자 등 매장 입점

탄소중립을 비롯해 환경보호 등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인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2층 '이슈'는 재활용 패키지를 사용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로 꼽힌다.

이슈는 스킨 케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토어 인테리어와 원료 수급에 신경 쓰고 있다.

제품 용기는 재활용이 간편한 유리를 이용하며 바디 클렌저, 샴푸 용기는 재활용 소재를 함유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슈의 대표 친환경 제품으로는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 (75ml·3만9000원), '레저렉션 핸드워시' (500ml·5만3000원), '제라뎀 바디 클렌저' (500ml·5만9000원)이 있다.

신관 지하 1층 신발 브랜드 '베자(VEJA)'도 친환경 브랜드로 이름이 높다.

베자는 브라질산 야생 천연고무를 원료로 신발 밑창을 만들고,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베지 않고 칼집을 내는 방식으로 흐르는 고무 수액을 채취한다.



21일 광주신세계 이슈 매장 직원이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특히 신발 제작에 사용되는 천으로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쓰지 않은 목화를 이용한다.

베자의 대표 모델인 '스니커즈 에스프라'는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는 베자의 철학이 반영돼 심플한 디자인을 갖췄다.

배우 엠마왓슨 등 국내외 셀럽들이 베자 제품을 착용하며 유명해졌고, 지난 2022년 전 세계 60개국에서 약 3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베자 최고 인기 상품은 '베자 캅포 스니커즈' (22만8000원)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돌아온 야구의 계절...신세계그룹 '랜더스데이' 진행

다음달 1~7일 계열사 총출동

신세계그룹이 프로야구 개막 시즌에 발맞춰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랜더스데이를 시작한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4월1일부터 7일까지 '2024 랜더스데이'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랜더스데이는 그룹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2배 이상 커진 1

조원 규모다.

신세계그룹은 랜더스데이에 그로서리, 패션, 리빙, 가전, 레저 등 일상생활 카테고리에서 고객들의 고품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가 혜택 및 차별화된 상품 제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체험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SSG닷컴과 G마켓 등 온라인 계열사들은 일주일 내내, 이마트·신세계 등 오프라인 계열사들은 주말(5~7일)에 집중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계열사 별 할인쿠폰 및 쇼핑 혜택, 행사 기간 등 세부내용은 랜더스데이 첫 날인 4월1일 오전 SSG닷컴 내 신세계그룹 랜더스데이 통합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랜더스데이 시작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는 사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우선 SSG닷컴 랜더스데이 페이지에서는 쿼츠 맞추기, SNS 공유하기 등을 통해 조선희텔 숙박권, 신세계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 전기요금 동결...하반기 인상 유력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 단가를 1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뤄지는데, 연료비조정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원자재 및 연료비 상황에 따라 매 분기마다 1kWh 당 ±5원까지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가 시작되는 전달 21일 발표되는데, 한전은 지난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으로 반영한데 이어 2분기도 최대치로 동결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최근 국제에너지지 및 연료비가 안정되는 추세를 반영해 오는 2분기부터 1kWh당 -2.5원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부가 과잉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고물가 잡기에 총력을 벌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올해 하반기로 넘어간 모양새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의 재무 정상화를 위해 오는 하반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웃돌았고, 연간 손실되는 이자 비용만 4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신속한 재무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이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중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연준 덕에 '경총'...비트코인 6만7천달러 반등

이더리움 6.37%·솔라나 8.86% ↑

하락세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급반등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5시 30분(서부시간 오후 3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6% 급등한 6만7811달러(909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이후 이를 만에 6만7000달러선을 회복하며 6만8000달러선 탈환도 눈앞에 뒀다.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역대 최고가(7만38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동안 하락 곡선을 그렸

다. 전날에는 고점 대비 약 17% 하락하며, 6만 달러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내 금리를 0.25% 포인트씩 3차례 인하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급반등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6.37% 오른 3488달러, 솔라나는 8.86% 상승한 187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